

韓國近代의 農書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金 鳳 姬*

目 次

- | | |
|---------------|--------------|
| 1. 緒 言 | 3. 近代의 農書 |
| 2. 農書의 歷史의 背景 | 3.1 농업 일반서 |
| 2.1 삼국 및 고려 | 3.2 농업관련 법규집 |
| 2.2 조선전기 | 3.3 상업적 농법서 |
| 2.3 조선후기 | 4. 結 言 |
| 2.4 실학영향의 농서 | |

1. 緒 言

농업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이다. 농업에 대한 접근은 농업정책, 농업경제, 농업기술 등의 측면이 있으며 총체적인 학문의 성격으로 보면 농학이라 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학은 고대농학과 일제시대 이후의 현대농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시기가 1900년 전후의 개화기이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농사시험장과 농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근대 농학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농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것은 농업기술, 정책, 경제 등을 망라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農書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근대농학을 다루는 농서 비중은 상당하다.

본격적으로 농서를 편찬하여 발행하던 조선시대에는 姜希孟, 姜希顔, 徐有桢, 許均, 崔漢綺 등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은 대개 농서의 편찬과 발행에 관여하였다. 1900년대 초반에는 조선후기의 實事求是의 실학사상을 이어받고 서양학문에서 농업의 신기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95. 10. 6.

술을 농서를 통해 보급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개화인사들이 다종다양한 농서를 편찬, 번역, 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학의 연구는 현대농학의 시발점이 되는 1900년대 초반의 농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와 1800년대 개항기의 농서인 「農政新編」, 「農政會要」를 언급하고 일제시대의 농서로 이어져 있을 뿐 근대적 농학을 다루고 있는 농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시험장 및 교육기관의 설립 이후의 근대적 농업을 내용으로 한 농서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대농학의 출발점인 근대적 농서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이들의 근대적 농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당시의 일간지인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 등 서적광고와 여러자료에서 당시의 농서를 찾아내고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실사하여 간행의도, 간행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2. 農書의 歷史的 背景

2.1 삼국 및 고려시대

삼국 및 고려시대에는 농업에 관한 서술이 개별의 서적으로 편찬되지 않았고 다만 역사서와 일반서적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지에서 언급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多婁王六年二月人令國南州郡始作稻田¹⁾

今浦縣稻田五頃中皆米類成穗²⁾

이들 기록은 벼농사에 관한 것으로서 신라 중엽에 벼의 재배 및 기술이 우리나라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李丙壽 譯註. 1977. '百濟本記'. 「三國史記」. 서울: 乙酉文化史. p. 211.

2) 李丙壽 譯註. 1986. '惠恭王條'. 「三國遺事」. 서울: 明文堂. p. 62.

또한 「三國史記」에,

諸州郡修完塘防(逸聖尼師今十一年條)
 命有司修理堤防(法興王十八年條)
 增築碧骨堤(元盛王六年條)
 教修完防勸農(憲安王三年條)³⁾

등과 같이 치수에 관한 기록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高麗史節要」 등에서 농업관련 기사가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고려 초기에는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지확장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顯宗三年二月教曰西北州鎮自經兵亂民乏資糧今當農作之時無以墾植
 光宗二十四年十二月判鎮墾私田則初年所收全結二年始與田主分半公田限三年全結四年始
 依法收租⁴⁾

에서와 같이 墾地의 특전, 조세, 소작료를 규정하여 간척의욕을 높이고 있다.

또 벼농사의 핵심인 물을 다스리기 위한 제방의 개축 및 증축에 관한 기록등을 찾아볼 수 있다.

明宗十八年三月下制以時勤農務修堤堰貯水流潤無令荒耗以給民食⁵⁾

顯宗元年修築舊堤⁶⁾

毅宗二十四年六月廷福亭南川堤決命復塞之詔曰軍卒力竭不能堤防宜發丁坊里築之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 및 고려시대를 거쳐 단행본으로서 농업을 기술한

3) 李丙壽 譯註. 1977. 「三國史記」. 서울: 乙酉文化史. pp. 101-114.

4)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7. 「食貨志」 「高麗史」. 서울: 경인문화사. pp. 733.

5)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7. 「食貨志」 「高麗史」. 서울: 경인문화사. pp. 735.

6) 「增補文獻備考」. 1959. 서울: 명문당.

7) 「국역고려사절요」. 196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555.

農書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고려시대에 중국의 「齊民要術」(新羅 眞興 11년(550)경), 「四時纂要」(高麗 光宗 1년(950)경), 「農桑輯要」(高麗 元宗 14년(1273)) 등의 농서를 복각 또는 초출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2.2 조선전기

고려말에 복각하여 널리 사용하였던 중국의 「農桑輯要」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번역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養蠶經驗撮要」는 현존하는 최초의 양잠서로서 太宗 15년(1415)에 韓尙德이 왕의 뜻을 받들어 「農桑輯要」에서 양잠편만을 吏讀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이다. 20항목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原書인 「農桑輯要」의 養蠶條 내용의 1/5정도이다.

이 책 이전 太宗 14년(1414)경 李行이 「農桑輯要」를 근거로 「養蠶方」을 만든바 있으나 이는 번역이 아닌 내용의 일부를 간추린 것으로 현존하지 않는다.⁸⁾

우리나라의 농법을 소개한 농서로서는 世宗때의 「農事直說」을 들 수 있다. 世宗은 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世宗 26년(1444)에 「勸農教書」를 내려 농업의 중요성과 농사기술의 기준확립, 기술의 지도 보급을 강화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간행된 「農事直說」은 備穀, 耕地, 種麻, 種稻, 種穆, 種大豆, 種小豆, 種麥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어 곡식작물 재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農事直說」은 각지에 적절한 농법을 수록한 데 의의를 가지며 타국적 농법에서 탈피하는 농업정책의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成宗 26년(1492)에 內賜本으로 간행되고, 孝宗 7년(1656)에는 「農家集成」에 포함되었고, 肅宗 12년(1686) 崇禎本으로 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農事直說」이 官撰書임에 비해 姜希孟(1424-1483)이 私적으로 그의 경험과 견문을 통해 저술한 「衿楊雜錄」이 있다. 간행은 강희맹의 사후인 成宗 23년(1492)에 이루어졌으며 「農事直說」과 함께 宣祖 14년(1581)의 內賜本 「農事直說」에 습제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穀品, 諸風辨, 種品宜五가 중심이 된다. 穀品은 작물의 고품종을 80여개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農事直說」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를 언급하고 있다. 諸風辨에서는 農家の 재앙을 水害와 風害로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이를 설

8) 金容燮. 1986. '농사직설의 편찬과 기술'. 『에산학보』. 4. P. 198.

9) 李光燾. 1965. 「養蠶經驗撮要」에 대하여. 『歷史學報』. 28집. pp.25-28.

명하고 있으며 種品宜五에서는 適地適作을 강조하였다. 이 서적은 「農事直說」을 농경의 지침으로 삼으나 「農事直說」에서 불충분했던 것을 보완하였다.

「菁川養花(小)錄」은 조선전기의 화훼기술과 원예기술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世祖때 집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는 姜希顔(1419-1464)으로 그가 관직을 떠나 있는 동안 문헌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엮은 화훼교본이다. 이 서적은 16종의 참고문헌을 과학적이고 짜임새있게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험·견문을 토대로 이루어져 일본의 江戸시대와 후출된 「四時纂要抄」, 「山林經濟」, 「林園經濟志」에도 계속적으로 인용되었다.¹⁰⁾

앞서 언급한 「四時纂要抄」는 중국의 「四時纂要」에서 필요한 사항을 抄하여 편찬한 월령농서이다. 「農家集成」에 수록된 「四時纂要抄」는 序, 跋이 없어 누가 언제 편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農事直說」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조선의 농업현실에 맞게 중국의 농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겨진다.

2.3 조선후기

조선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어 조선의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회복하고 국가재정과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의 향상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좋은 농서 편찬이 절실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농서를 편찬하여 보급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여 농업생산의 재건 및 증진에 관심을 갖는 私的 간행이 많았다.

따라서 농서를 편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 중국의 농서를 抄하는 경우, 관행농법을 정리하는 경우, 前期의 농서를 증보 종합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2.3.1 중국 농서의 抄

주로 중국의 농서에서 발췌하여 간행된 농서는 「閑情錄」, 「穡經」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閑情錄」은 저자인 許筠이 임진왜란 직후에 지방수령을 역임하면서 저술한 서적으로서 卷 16의 治農編에서 농업에 관해 다루고 있다. 참고한 문헌은 중국 明代의 「陶朱公致富奇書」이며 내용은 크게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擇地, 播種, 綿花, 養蠶, 養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10) 李春寧. 1988. 「한국농학사」. 서울: 민음사. pp.86-88.

「穡經」은 肅宗 2년(1676)에 西溪 朴世堂(1629-1703)이 官에서 물러나 楊州에서 집필한 농서로서 관직에 있을때 祕閣의 도서를 열람하고 수집한 자료를 엮은 것이다. 上下 2권으로 구성된 이 서적은 상권에서는 穀類, 菜類, 果類, 樹木, 花卉, 豚鷄, 養蜂 등을 다루었고 하권에서는 栽桑, 養蠶, 田家月令, 占驗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서적은 종래의 농서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고 분류가 정연하며 개별사항이 상세하여 농가의 소백과사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진일보한 농서라고 할 수 있다.

2.3.2 관행농법의 정리

「農家月令」은 高尚顏(1553-1623)이 光海君 11년(1619)에 편찬한 것으로 관직을 떠나 관직에 있을 때 느낀 것을 토대로 농서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당시 조선에서 관행하고 있는 농법과 자신이 목격한 바를 토대로 저술한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재배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농서가 아니라 파종시기와 토성과의 適否를 알려주는 월령서이다.¹¹⁾

「山林經濟」는 洪萬選(1643-1715)에 의해 편찬된 4권 4책의 농서로서 간행은 되지 못하고 寫本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내용은 16志로 구성되어 卜居, 撮生, 治農, 治圃, 種樹, 養花, 養蠶, 牧養, 治膳, 救急, 救荒, 治藥, 選擇, 雜方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서적은 이후에 柳重林에 의해 증보되어 「增補山林經濟」로 간행되었고, 徐有渠의 「林園經濟」의 바탕이 되었다.

「厚生錄」은 辛敦復이 1750-1760년대에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서이다. 중국의 농서로서는 「神隱」을, 국내의 농서로는 「農家集成」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고 현실적으로 관행하는 농법인 近法을 수록하여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술한 농서이다.

2.3.3 前期 농서의 증보 종합

「閑情錄」, 「農家月令」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농서였지만 私적으로 편찬하였기에 널리 간행·보급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농업생산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농서를 간행할 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舊來의 농서를 복간하여 이용해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편찬된 대표적 농서가 「農家集成」이며 公州牧使 申泐(1600-1661)이 孝宗 6년(1655)에 편찬·간행하였다. 내용구성은 「農事直

11) 金容燮, 1987. '농가월령의 농업론'. 「東方學志」, 54 55 56 집, pp.225-229.

說」을 중심으로 하여 世宗의 ‘勸農敎文’, 朱子의 ‘勸農文’, 「衿陽雜錄」, 「四時纂要抄」를 한권의 책으로 집성하였고 校書館에서 鑄字로 인쇄, 간행하였다. 肅宗 12년(1686)에는 朴致維가 「救荒撮要」를 첨부하여 上梓하였으며, 英祖 10년(1734)에는 팔도에 널리 인포하였다.

「民天直說」은 英祖 28년(1752)에 斗庵에 의해 편찬되었으나 간행은 되지 않고 寫本만이 전해진다. 이 서적의 農圃門은 「農家集成」, 「山林經濟」 등을 참조하여 편찬한 것으로 관행하는 농업에 관해 다루고 있다.

2.4 실학영향의 농서

조선후기의 실학은 實事求是의 학문으로 실생활에 이로운 농서와 같은 실용서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농서의 편찬은 개화기에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北學議」는 正祖 2년(1778)에 朴齊家가 중국에 다녀와서 중국문물의 뛰어난 점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기술한 서적으로 車, 船, 城에서 服飾, 言語, 科擧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正祖 22(1798)년에 왕의 求農書繪音을 듣고 농업 관련 문제를 초록, 첨삭하여 「進疏本北學議」를 편찬하였다. 이 서적은 종래의 농서들이 농업기술, 농법을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의 전체 경제기구를 논의했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課農小抄」는 朴趾源의 저작으로서 중국 및 우리나라의 농서를 골고루 인용하였으며 농업기술을 체계화하고 학문으로 성립시키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개화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崔漢綺는 1830년대에 「農政會要」와 「陸海法」가 같은 농서를 저술하였다. 특히 「農政會要」는 農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土宜, 田制, 水利, 田賦, 穀種, 墾耕, 菜蔬, 果樹, 林木, 紡績, 養蠶, 畜牧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근대적 농서에서 대부분 수록하고 있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近代의 農書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열강들의 압력과 함께 외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농학과 농업기술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적 농서라하면 1880년대 이후 이를 보급시키기 위해 저술·편찬된 서적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적들은 농업에 관한 기술, 경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농업 일반서, 당시의 농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 농업 관련 법규집, 상업적 농법으로서 잠업, 양계, 과수, 소채, 삼림 등을 소개한 농서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3.1 농업 일반서

농업 일반을 다룬 서적은 비교적 일찌기 발행되었는데 高宗 18년(1881) 安宗洙가 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농서인 「農政新編」이 그 시작이다. 그 이후에 「實利農方新編」과 「農業大要」, 교과용 도서로 편찬된 「新撰農業教科書」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農政新編」¹²⁾은 李覺鍾이 저술하여 1880년대 선진 외국 기술을 받아 들이는데 적극적인이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安宗洙가 일본에서 가지고 돌아온 각국의 농서를 참조하고 자기 나름으로 정리하여 1881년에 4권 4책으로 완성한 서적이다.¹³⁾ 이 서적은 高宗 22년(1885)에 廣印社에서 초간본을 간행하였고, 高宗 42년(1905)에 재간하였다. 印本 이외에도 초간본을 축약하여 필사한 필사본이 현존하고 있다. 재래식 농사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서양농법의 과학적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여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선각자적 의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서양의 근대농법을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서 한국 농업기술사상 가치가 있다.¹⁴⁾

「實利農方新編」¹⁵⁾은 隆熙 3년(1909) 1월에 新文館 印出局에서 인쇄하고 李海朝가 발

12) 초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권 4책, 재간본: 서울대학교 소장.

13) 農政新編序

(上略) 安起亭宗洙聰明強記講洛間之書之書懷經濟之志今年春東遊日本得中西農書若干篇以歸譯以漢文刪其繁彙分條析編爲四卷命之曰農政新編 (下略)

辛巳歲抄通訓大夫 侍講院文學東陽申箕善序

14) 李光麟, 1970, '安宗洙의 農政新編', 『韓國開化史研究』, pp.220-233.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 1책. 서 1면, 일러두기 4면, 목차 4면, 본문 82면.

행한 서적¹⁶⁾으로 농업의 대의 및 국내의 일반 농학 중에서 최신 개량된 각종 유익한 방법을 간명하고 평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책으로 보통학교 교과용 도서로 사용되었다.¹⁷⁾

이 서적은 동서국가의 농업이 날로 발달하여 이전의 5배가 넘는 이익을 얻어 백성들의 복리가 증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농상은 오히려 전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빈곤을 치유할 길이 없어 간행하게 되었다.¹⁸⁾

「農業大要」¹⁹⁾는 농업전체의 요령을 기술하여 각 학교의 농업과 및 농림강습소의 교과에 가장 적당할뿐만 아니라 현재 각지 농림모범장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 신식농림 잡업, 축산 등의 방법을 명기하였으므로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양서였다.²⁰⁾

보통교육농업과의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전반에 걸쳐 서술한 것으로서 주안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농업진흥에 전력하도록 한 것이다.²¹⁾ 또한 농업을 경영함에 이

16) 「實利農方新編」 판권지

隆熙三年 月 日 印刷

隆熙三年 月 日 發行

著作者 李覺種

發行者 李海朝

印刷所 新文館印出局

17) 皇城新聞 1909년 1월 17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12월 10일자 광고

本書는 農業의 大意及 內外國 一般 農學上 最新改良發明된 各有益한 方法等을 簡明正確하고 平易施行하기 編述하여 雖素學이 無한 者-라도 一覽 一試에 家産의 富貴致得하기 容易하며 且 普通學校 加修科 農業教授에 適用하여 初學者로 農業의 大要方法을 簡易解識할 得을 恐지니 苟其 國利家福을 爲하노는 人士는 陸續求購하시요

18) 實利農方新編序

(上略) 東西列邦之 農制가 日 益發達하야 規模制度-極其精美而 收益이 以前에 以 倍蓰計하니 生民之 福利-可謂 日增而 月加矣 然이나 在乎 我國하야는 農與商이 尙未脫乎 前日之 狀態하야 民國經濟-因 窮乏無以 營也하니 此는 吾人-之所共 憂悶也-러니 李君覺種이 用是 嘆惜하야는 著實利農方新編하니 所以 敎農業家-之 爲農也-라 氣候土宜-는 取適於 我國하야고 制度器械-는 取美於 列邦하야는 今古東西-而 折衷之하니 可謂 完且備矣 夫다

是年 之日 虛室主人 文建鎬題

19)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장 1책, 법례 1면, 목차 4면, 서언 1면, 본문 97면.

20) 皇城新聞 1910년 3월 8일자 광고

本書는 農業全體의 要領을 記述하야 簡易完全하니 各學校 農業科及 農林講習所의 敎科에 最適當할 뿐만 아니라 現時我國 各地 農林模範場에 實驗한 結果를 依照하야 新式 農林蠶業畜産等 方法을 明記하야 故로 我一般 農家의 參考採用에 極有利한 良書

21) 凡例

· 本書는 普通教育 農業科의 敎과 整에 充하야 爲하야 (中略)

· 農業의 學은 元來 他의 普通學科와 有異하야 關係는 甚가 極히 複雜하니 敎師는 敎授上에 就하야 特別 適切한 方法을 要함은 尙矣어니 特히 本書의 主眼으로는 學生으로 하야 今 農業을 不得不振興하야는 遊惰, 奢侈, 空論等을 戒함에 注意하야는 敎師도 亦此에 注意하야 說明함을 要함

隆熙三年 小春之月 著者識

어 상당한 학술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연구하여 개량·발달시키기 위해서 간행되었음²²⁾을 알 수 있다.

전적으로 교과용 도서로서 편찬된 「新撰農業教科書」²³⁾는 官立師範學校 教授 福島百藏, 前農商工部園藝模範場 押切祐作, 大昏子 金大熙 등 3인이 함께 저술하였으며, 공립 보통학교 및 공립보통보습과 농업 보습학도를 위한 서적이다.²⁴⁾ 보통학교 제 3, 4학년과 보통 보습과 및 실업 보습학교용으로 편집되었고, 한국농업의 현상에 특히 주목하고 이를 점차로 개량 발달케 하여 농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간행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²⁵⁾ 이들 서적은 농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발행년도에 따라 내용구성의 변화의 모습을 <표 1>에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1> 농업 일반서의 내용 비교

항목	서명	「農政新編」	「實利農方新編」	「農業大要」	「新撰農業教科書」
발행년도		1881년	1909년	1910년	1911년
내용구성		제1권 土性辨, 培養法 제2권 糞詳法 제3권 六部耕種上 제4권 六部耕種下	제1편 農理 제2편 肥料 제3편 栽培 제4편 病理及治療	제1편 土地 제2편 肥料 제3편 栽培 제4편 植木 제5편 養蓄 제6편 養蠶	前篇 38課 後篇 41課

22) 緒言

(上略) 農業을經營함에는相當한學術智識이無함이不可하니此를研究하는科學이即農學이라故로我國民民者는普通으로農學을不可不知함이니此-農業을研究實行함은아니라益益히改良發達함에必要호所以니라 (下略)

23)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2책. 前篇: 범례 2면, 목차 4면, 본문 58면, 後篇: 범례 2면, 목차 4면, 본문 80면.

24) 大韓每日申報 1910년 6월 14일자 광고

公立普通學校及同補習科與農業補習學校學徒用

25) 凡例

一 本書는普通學校第三四學年과同補習科及實業補習學校用에充하기爲하야編著호者이라 (中略)

一 本書는特히韓國農業의現狀에注意호고漸次로此를改良發達케하야農民의福利를增進호을目的으로호고編著호者이니 (下略)

隆熙四年二月日 著者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농서인 「農政新編」은 4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권은 토지의 성질과 배양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2권은 糞으로 비료를 주는 방법을 기술하고 제 3, 4권은 경작에 관하여 根, 幹, 皮, 葉, 花, 實 등의 6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22면의 前篇은 농작물과 농기구에 관한 목판 도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서양 각국의 새로운 농기구와 농업 기술을 전달시키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이후에 간행되는 서적에 비해서 상업적 농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實利農方新編」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農理, 肥料(거름), 栽培, 病理 및 治療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재배편에서는 곡류 이외에도 果樹, 蔬菜, 煙草, 綿, 茶, 桑樹의 재배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비료편에서는 糞이외에 鑛物, 植物, 動物 肥料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 농산물의 재배와 함께 농작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농법이 점차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0년과 1911년에 각각 발행된 「農業大要」와 「新撰農業教科書」는 수록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新撰農業教科書」가 전적으로 교과용으로 맞추어져 편찬되었다. 「農業大要」는 농업전체의 요령을 기술하여 각 학교의 농업과 및 농림강습소의 교과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각지 농림모범장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 신식농림잡업, 축산 등의 방법을 명기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양서이다.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土地, 肥料, 栽培, 植木, 養畜, 養蠶 등을 각 편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재배편에서는 「實利農方新編」에서와 마찬가지로 곡류를 비롯하여, 果樹, 蔬菜, 煙草, 木綿, 桑樹에 관해 설명하였고 양축편에서는 馬, 牛, 豚, 羊, 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新撰農業教科書」는 조선농업에 특히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여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편찬하였다.²⁶⁾ 前篇과 後篇의 2책으로 나뉘어져 학교의 교과과정에 적용하도록 전편은 38課, 後篇은 41課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양잠은 전·후편에 걸쳐 6과를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어 양잠을 중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 서적은 다루고 있는 재배작물이 유사하고 이전의 농업 일반서적에 비해 양축편

26) 凡例

(上略)

· 本書後篇은朝鮮農業에對하야特히必要로認호材料를選호하야實際의參考에供키爲하야稍히詳細하게掘纂함이從호야
本書後篇은當業者의參考書로亦是適當호지라

(下略)

明治四十三年十二月 著者識

이 더해졌으며 양잠을 강조한 점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일반 농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나 농업의 기초가 되는 토양에 관해 전문적으로 서술한 서적이 隆熙 4년(1910) 3월에 光東書局에서 발행한 「最新土壤學」이다. 朴重華가 저술한 「最新土壤學」²⁷⁾은 158면에 걸쳐 토양의 형성, 理化學的 및 理學的 성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서적의 總論에서 토양은 경작에 사용할 만한 지각의 표층으로서 식물근이 능히 뻗어 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토양학은 이러한 토양의 기원, 성질, 분류 등을 연구하여 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이 서적은 토양의 생산력은 단지 토양의 성질 뿐만 아니라 기후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깊이 연구하여 토양의 상태에 적응하여 작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는 것을 간행의 의의로 삼고 있다.

3.2 농업관련 법규집

「國有未墾地利用法」²⁹⁾는 隆熙 원년(1907) 10월 15일에 農商工部の 國有未墾地 事務所에서 편찬하고 光東書局에서 발행하였다.³⁰⁾

시행세칙, 청원서류, 현행도면, 사업예정도면을 구비하였으며 실측도도 첨부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측량사무소와 측량생도들이 제도과 서식을 익히기에 유용한 서적이다. 이 서적의 내용 구성은 크게 다섯가지 부분인 法律第四號(國有未墾地利用法), 農商工

27)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목차 3면, 본문 158면.

28) 總論

土壤이라 하는 것은 普通耕作에 供用할 地殼의 表層인 地植物根이 能히 蔓延할 得을 得을 云云 이오 其起源, 性質及 研究方法等에 就하야 論하는 것을 土壤學이라 稱하며 又其 狀態性質을 變更하는 方法은 土地改良論及 肥料學의 本領이니라 蓋 夫 農林業은 土地로서 生産의 基礎를 成하는 것인디 支持力及 養分되는 것은 土壤이라 하는 其物의 性質中에 存在하느니라 此로서 土地의 技術의 特性이라 稱하느니라 土壤은 實로 農林業에 對하야는 技術의 生産場인디 植物의 生育에 對하야 資하는 事多하고 植物의 住宅이 될만하며 又 植物의 貯藏庫라 稱하느니라 (中略) 農林業에 從事하는 者는 最先其 生産의 基礎가 된 土壤의 性質을 確知하고 各種의 土質에 通曉하야 耕耘, 培肥, 改良等事에 十分注意하야 生産力의 增加를 改良치 아니치 못하느니라 雖然 이는 土壤의 生産力이라 하는 것은 但土壤의 性質에 만 關한 것이 아니라 氣候의 如何와 其他 直接或 間接으로 至大 關係가 有하事許多하느니라 故로 吾人은 此等 諸般事況을 깊히 研究하야 土壤의 狀態에 適應케 하야 作物의 生育을 良好케 爲을 本 旨를 爲하느니라

29) 연세대학교 소장. 전 1책. 총 41면.

30) 皇城新聞 1908년 12월 1일자 광고

右 冊은 農商工部 國有未墾地事務所에서 編纂하은 것인디 施行細則과 請願書類며 現形圖面과 事業豫定圖本이 具備하오고 實測圖一本을 添入하엿사오니 凡 京鄕測量事務所의 測量生徒는 不可不購覽하야야 製圖와 書式의 違否即 却의 缺點이 無하터오니 測量의 有 意 員은 繼續購覽하시옵

部令第五十號(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農商工部告示, 國有未墾地利用法에 關한 注意, 國有未墾地貸付請願及關係圖面書類例으로 나뉘어 41면에 걸쳐 소책자로 발행되었다.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간이 되지 않은 땅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간행된 법률집이다. 그 주된 내용은 본 법률집의 핵심인 國有未墾地利用法の 몇몇 條를 살핍으로 알 수 있다.

第一條國有未墾地는民有以外的의原野, 荒蕪地, 草生地, 沼澤地及干潟를稱함

第二條國有未墾地는本法의規程에依호야貸與호을得호호貸與期間은十個年에超過호을不得호

第三條貸與를受호호者가豫定의事業을成功호時는農商工部大臣은該貸與를受호호者에게對호야該土地를賣下又是貸與호을得호

第四條 貸與를 受호호자 호는 者는 農商工部 大臣에게 請願호야 許可를 受호호이 可호

第五條貸與를受호호者는農商工部大臣의指定호바를依호야貸與料를納入호호이可호

즉 국가는 민간이 소유한 이외의 땅을 국가의 소유의 땅으로 규정하고 미간지를 일반인에게 대여하여 경작하게 하여 일정한 대여료를 받도록한 사항에 관한 법률집이다.

「鑛山法規」³¹⁾는 農商工部에서 칙령(勅令)으로 반포한 것으로서 광산법규의 세칙, 도식 및 삼림법의 세칙을 신고 있는³²⁾ 서적으로서 隆熙 3년(1909) 6월 3일에 任學宰가 편집하고 인쇄는 右文館이 담당하고 光東書局에서 발행하였다. 이 서적은 上下 2편이 1책으로 편집되어 있어 上편은 주로 광업법이 하편은 임업법을 각각 88면씩 수록하고 있다. 上편에 수록된 법률은 광업법 및 시행세칙, 附屬樣式, 砂鑛採取法 및 시행세칙, 부속양식, 수출시의 면세에 관한 법, 宮內府에 屬한 鑛山 等이며 하편은 법령, 農商工部官制, 山林局分課規程, 林業事務所官制, 森林法, 國有森林分野林規則, 國有森林山野及處理規則, 國有森林山野處分審査會規則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록으로는 民

31) 연세대학교 소장. 전 1책. 上下二編. 목차 2면, 상편 88면, 하편 88면.

32) 皇城新聞 1909년 5월 23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6월 17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6월 20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6월 25일자 광고

右冊은農商工部에서頒布호鑛山法規則及細則과并[式及森林法과細則을細細發刊호았소오니測量員과 一般人民의不可緩覽이오니即速購覽호

有森林山野略圖가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

전술한 「鑛林法規」³³⁾에서 임업 부분의 법규만을 약 1년전에 87면에 걸쳐 편찬한 서적이 「林野法令」이다. 隆熙 2년(1908) 5월 25일에 農商工部の 山林局에서 편찬하여 光東書局에서 발행한 서적으로 發行所가 「鑛林法規」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광업 및 임업법규를 합본하여 1년 후에 다시 발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3.3 상업적 농법서

3.3.1 잠업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업적 농법은 주로 잠업에 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개화기에 들어서 잠업에 관한 농서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잠업에 관한 농서는 초기에 일본의 농서를 번역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人工養蠶監」과 「蠶桑實驗說」이 있으며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적용된 「養蠶實驗說」, 「新訂蠶業大要」, 「最新柞蠶學」 등이 있다.

먼저 「人工養蠶監」³⁴⁾은 관련지가 없어 정확한 발행일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내제지,³⁵⁾ 서문³⁶⁾ 및 발문³⁷⁾ 등의 일자로 미루어 光武 5년(1901)경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서적은 국가가 근대 시대에 역행함을 통렬히 실감하고 각국에 이익이 되는 학문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라가 부해지고 강병해지기를 회구하여³⁸⁾ 간행되었다.

「蠶桑實驗說」³⁹⁾은 일본의 유명한 학사인 松永伍作의 저술을 국한문으로 申海永이

33) 연세대학교 소장. 전 1책. 목차 1면, 본문 87면.

34)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서문 6면, 목차 2면, 본문 22면,跋 1면.

35) 光武五年

人工養蠶監

金嘉鎮跋

36) 人工養蠶監序

光武五年暮春之初永嘉權在衡書

37) 光武五年暮春下泮壽昌徐丙肅跋

38) 養蠶監序

(上略) 國家自近歲求痛懲其湖湖求前憲勞取各國利厚之學稍稍興焉有姜君鴻大金君漢陸韓君宜東方君漢永尹君壽炳諸人遊學于日本得蠶學焉其法用汽水以適蠶之寒暖而速成之能致一年八熟視諸清國江南之一年三熟不翻倍之洵乎妙奪天工諸人既卒業而結同志養蠶會社因謀于不備開傳習所以處學徒而日隸之其用心可謂勤矣于是本所監徐相勉徐丙肅二君子與諸人譯日士橫田君所輯養蠶監一書將印舖國中請余序之不 自惟受國厚恩無一報效庶賴諸君子之力得印此而至於富國富北而至於強兵則不亦幸哉滄極論唐三代利厚之本意以歸之

光武四年梧月下泮壽興閔丙爽書

번역한 서적⁴⁰⁾으로 판권지⁴¹⁾에 발행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발행일자는 알 수 없으나 내제지,⁴²⁾ 서문,⁴³⁾ 발문⁴⁴⁾ 등에서 光武 5년(1901)에 廣文社에서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적은 農部에서 課를 설립하고 모든 과원들이 책을 널리 모아 번역하여 간행한 것이다. 백성의 재물이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이 서적을 각 가구에 널리 전하여 실행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을 의도하고 있다.⁴⁵⁾

이 두 서적은 모두 光武 5년(1901)에 발행되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내용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人工養蠶監」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총론, 양잠기계의 효용, 구조,

<표 2> 초기 양잠서의 내용 비교

항목서명	「人工養蠶監」	「蠶桑實驗說」
발행년도	1901년	1901년
내용구성	總論 養蠶機械效用 養蠶機械構造 養蠶機械運用及飼育法 上簇及殺庠	桑之部 蠶種之部 養蠶室之部 飼育之部

39)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서문 2면, 목차 4면, 본문 140면, 부록.

40) 皇城新聞 1901년 10월 19일자 광고

本冊은 日本의 有名 蠶學 士의 著述 者를 國 漢文으로 譯出 せ 앗스니 蠶桑에 有 益 者 諸 君 子는 來 購 せ 시 옵.

41) 一部定價金七十錢

皇城中暑下漢洞廣文社發售

42) 光武五年

蠶桑實驗說

金嘉鎮纂

43) 蠶桑實驗說序

光武五年蠶月上澣永嘉金嘉鎮

蠶桑實驗說序

光武五年梧秋下澣金圭弘書

44) 光武五年九月 日壽昌徐丙憲

45) 蠶桑實驗說序

(上略) 命農部設課建官以精於工者管其務於是國之蠶始化私而公矣僉課員欲廣其傳蒐其書而譯之名曰潛商實驗說將布諸天下於乎國以民爲本民以財爲命是書一行家習而戶傳之則國家富強之業基乎此矣(下略)

光武五年蠶月上澣永嘉金嘉鎮

운용 및 사육법, 상족 및 살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로 양잠 기계의 도입과 이의 사용 및 효과를 22면에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蠶桑實驗說」은 桑, 蠶種, 養蠶室, 飼育에 관한 4부로 구성되어 있어 뽕나무 재배에서 시작하여 잠의 종을 선택하여 사육하는 방법을 178면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910년대에는 「養蠶實驗說」, 「新訂蠶業大要」, 「最新柞蠶學」 등의 서적을 찾아볼 수 있고 「養蠶實驗說」은 鄭宇相이 편집하여 蠶業廣達會社에서 1908년에 발행한 서적⁴⁶⁾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양잠업에 있어 잠아의 생리위생상 적부를 알지 못하고 지출수입의 다과도 계산하지 못하여 조악한 사육법을 사용하였다. 光武 5년(1901)에 인공양잠법을 알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리나라는 이 업종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鄭宇相이 東京蠶業講習所에서 수학하던 중에 강사 土屋泰氏が 구연한 실험법을 기록하여 본서를 완성하고 해당업자들이 전일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편리한 좋은 방법을 익혀 생산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길 바라는⁴⁷⁾ 간행의도를 自序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新訂蠶業大要」⁴⁸⁾은 文錫琬이 저술하여 隆熙 3년(1909) 7월 15일에 普成社에서 인쇄하여 普成社에서 발행하였으며⁴⁹⁾ 잠의 생리, 병, 잠실, 잠구, 잠종, 사육법, 제사법, 재상법, 토양의 성질등을 기술하였고 圖畫를 첨부하여 상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最新柞蠶學」⁵⁰⁾은 판권지와 서문 등이 없어 정확한 발행일자를 밝히기 어려우나 신문⁵¹⁾에 광고된 연월일로 대략 隆熙 4년(1910) 봄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6) 「養蠶實驗說」 판권지

隆熙二年 印刷

隆熙二年 發行

校正發行 金秉先

譯述 崔錫烈

編輯 鄭宇相

印刷所 右文館

發賣所 蠶業廣達會社

47) 自序

我國이元來로養蠶業에蠶兒의生理衛生上不適否를不知하고又是支出收入의多寡도亦不計하고從히靛弄의粗惡한飼育法을人人得自知矣라越我太上皇光武五年度에人工養蠶法으로設敎場이勸導하니人多大利를圖得코저야巨額資本을增加다가畢竟에는人工二字로見敗者不鮮히故로以謂本邦은此業에不適이라云々니라余以此業으로早度日本야東京蠶業講習所에受學한지幾年間에講師上屋泰氏口演한實驗法을記得야本書를納成하고惟冀當業者의急速히前日難易한諸法을改善하여現今廣行하여便宜良法에從事하여技術上에漸次進歩하며本邦의適宜氣候로將來生産의增產品質을雄飛世間한면似히國富民族을不啻라自全之權이於千萬年에不墜케하니라 (下略)

隆熙二年元月既望 編者識

48)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권 1책. 목차 10면, 본문 181면.

〈표 3〉 양잠서의 내용 비교

항목	서명	「養蠶實驗說」	「新訂蠶業大要」	「最新柞蠶學」
발행년도		1908년	1909년	1910년경
내용구성		緒論 蠶種 蠶室 飼育準備 飼育 蠶病豫防 上簇及收繭 殺庠乾繭 蠶種製造	蠶의 生理論 蠶室 및 蠶具論 蠶種論 夏秋四化蠶利害 飼育要論 製絲論 栽桑論	野蠶飼料樹의 栽培論 野蠶의 形態論 野蠶의 病理論 野蠶의 被害論 野蠶種의 論 野蠶의 春蠶과 秋蠶의 利害 野蠶의 飼育法 繰絲論

표지에 기재된 사항으로 文錫琬이 저술하였고 同文館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적은 우리나라에 작잠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편술한 것이다.⁵⁰⁾

〈표 3〉은 1910년대에 발행된 3종의 양잠서 내용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養蠶實驗說」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 잠종, 잠실, 잠구, 사육준비, 사육, 잠병예방, 상족 및 수견, 살충건조, 잠종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140면에 걸쳐 서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新訂蠶業大要」는 181면에 걸쳐 잠의 생리론, 잠실 및 잠구, 잠종, 사육, 제사,

49) 「新訂蠶業大要」 판권지
 隆熙三年六月十五日 印刷
 隆熙三年七月十五日 發行
 著述者 文錫琬
 校閱 普成齋編輯部
 印刷者 金柱丙
 發行者 玄昇奎

50)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목차 8면, 본문 64면.

51) 皇城新聞 1910년 3월 8일자 광고

52) 皇城新聞 1910년 3월 8일자 광고

右書는我國에柞蠶業을擴張키爲하야編成인柞樹를栽培하는法과蠶種製造法及蠶病驅除及豫防法과春秋蠶飼育하는法與繰絲하는法을詳細記載한緣由로此業에實績이無은人이라도一覽하면妙術을自解得호야巨利益을得호야冊子이오니江湖僉實業家는速速購覽하심其望함

재상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最新柞蠶學」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잠의 생리론, 병리론, 잠실 및 잠구법, 잠종론, 잠리해, 사육요령, 제사론, 재상론 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64면에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最新柞蠶學」은 앞서 살펴 본 「養蠶實驗說」, 「新訂蠶業大要」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잠종, 사육, 제사 등을 수록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또한 양잠의 근간인 桑樹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栽桑全書」⁵³⁾는 1905년⁵⁴⁾에 초간본이 발행되고 1912년⁵⁵⁾에 재판된 서적으로서 부록으로 포도나무 재배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서적은 玄公廉이 일본 서적인 「栽桑全書」를 번역한 것으로 桑樹, 桑樹열매 및 포도 재배법, 포도주 양조법 등을 국한문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정교한 100여 장의 도화가 수록되어 있어 그 설명이 명확하다. 이와 함께 중국 蘇杭州의 종자를 무역 거래하여 종자를 구매할 때에는 「栽桑全書」를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⁵⁶⁾ 총 11장으로 구성된 이 서적은 총론, 생리론, 토양, 비료, 桑樹, 養苗, 種植, 擇地, 질병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프랑스의 고-도뚜루지방의 포도재배법을 소개하고 있다.

3.2.2 양계

잠업과 함께 양계는 農家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업적 농업의 하나이다.

53)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서 4면, 범례 4면, 목차 10면, 본문 43면, 도화 104면.

54) 栽桑全書序

光武九年一月上諭農商工部蠶業課長徐丙鼎序

55) 「栽桑全書」 판권지

明治四十五年二月四日 印刷

明治四十五年二月六日 發行

著作兼發行者 玄公廉

印刷者 方熙榮

印刷所 普明社

56) 皇城新聞 1905년 9월 30일자 광고

淸國蘇杭州○産盧桑種子을買來賣却호 음난바品良價廉호 고象히播種節期가在運호 오니速來購호 시되二升理想을購去호 시면栽桑書附葡萄栽培及釀酒法一冊을無代價仰호 하오리다

57) 「家庭養鷄新編」 판권지

隆熙二年二月 日 印刷

隆熙二年二月 日 發行

譯述者 申圭植

編輯者 黃堃秀

發行者 朴準一

金基鉉

印刷所 摺印社

發賣所 大東書市

「家庭養鷄新編」은 隆熙 2년(1908)에 申圭植이 역술하여 朴準一과 金基鉉이 발행⁵⁷⁾하였다. 닭은 사양이 쉽고, 성장이 빠르며, 고기와 알은 몸을 보하므로 양계법을 모든 국가들이 연구하여 장려하나 우리나라는 양계하는데 있어 천연부화계하며 관리가 부실하다. 이 서적을 통해 알의 부화, 병의 치료, 假母器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하여 一家가 부를 이루고 이는 곧 국가의 富源이 되기⁵⁸⁾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 서적의 발문에서는 인공양계의 많은 방법을 제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묘수⁵⁹⁾를 담고 있으며 양계는 긴요한 산업이며 거대한 이익의 원천이라 여겨 현재 문명국가에서 성행하는 양계법을 수록하여 인공 부화 및 醫治와 소수로 천수이상을 사양하는 비결을 수록하였다.⁶⁰⁾

「富國全書養鷄新論」⁶¹⁾은 일본 농학사인 井上正賀가 저술하고 鮮于叡가 번역한 서적으로 1908년 廣學書舖에서 발행하였다.⁶²⁾ 양계는 간단한 치부술이며 서양 각국에는 이를 통하여 부를 쌓은 사람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양계법은 유치하여 이 책을 발행하였

58) 家庭養鷄新編

(上略) 養鷄는 飼養이 便易하고 生長이 尤速하며 肉與卵은 虛勞를 補益하며 口體를 滋養함으로 養鷄法을 字內諸國이 莫不研究하여 精益求精에 獎勵繁殖함; 至於 法國은 京都에서 一歲中에 卵의 所費額과 輸出金이 四千萬圓巨欸에 達함이나 有호되 我國의 養鷄은 或其 司農 홀을 爲함 或需用 홀을 爲함 若若干 飼育함되 天然으로 孵化케 함 管理가 不適(中略) 此書-卵抱字育과 醫治가 燦然具備함고 至若 人工孵化와 假母器等함은 可히 天의 造化를 奪함고 世의 稀罕 寶訣이라 (下略)

隆熙二年二月 檜原黃瑩秀序

59) 跋

(上略) 余以是嘗病之何幸此一編新書即以人工養鷄之許多方法與養蠶畜魚同一其妙此果經世齊民之一部眞訣也申君圭植黃君瑩秀乃彈力登梓期欲廣布究其意識深矣 (下略)

我國鷄林之號顧我金窠炫竊以是行而爲之跋

60)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15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8년 3월 14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9월 24일자 광고

養鷄는 簡便한 產業이오 巨大한 利源이라 此書는 現今文明列邦에서 盛行함 養鷄法인 人工으로 孵化及 醫治와 小數로 千首以上을 飼養함은 要訣이오니 有志君子는 購覽實施함 심을 務望

6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권 1책, 총 180면.

62) 「富國全書養鷄新論」 판권지

隆熙二年三月二十六日 印刷

隆熙二年三月三十日 發行

譯述者 鮮于叡

校閱者 鄭雲復

發行者 金相萬

印刷所 普文社

發賣所 廣學書

〈표 4〉 양계서의 내용 비교

항목서명	「富國全書養鷄新論」	「家庭養鷄新編」
발행년도	1908년	1908년
내용구성	孵化, 飼育, 飼養, 鷄舍, 監督, 養鷄曆, 肉用鷄類, 卵用鷄類, 卵肉兼用鷄類, 玩好用鷄類, 鷄의 檢査法, 疾病, 割勢法, 鷄卵의 貯藏法, 鷄의 飼料分析表	제1장 家庭에 在흔 養鷄의 必要 제2장 鷄舍 및 運動場의 構造 제3장 鷄의 種類 및 選擇法 제4장 鷄의 飼料 제5장 鷄의 監理 제6장 鷄의 配 法 제7장 鷄의 繁殖法 제8장 育雛術 제9장 鷄의 疔氣治療法 제10장 養鷄年中行事

다⁶³⁾ 는 간행동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서적의 내용은 〈표 4〉와 같이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富國全書養鷄新論」은 총 15회로 내용이 구성되었는데 부화, 사육, 사양, 계사, 감독, 계의 종류, 검사, 질병, 계란의 저장법, 사료분석 등이 116면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家庭養鷄新編」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가정에서 양계의 필요, 계사, 鷄種과 선택법, 사료, 감리, 배우법, 번식법, 育雛術, 질병과 치료, 양계의 연중행사 등이 104면에 걸쳐 서술되어 「富國全書養鷄新論」과 내용구성과 면수가 유사하다.

3.2.3 기타

잠업과 양계 이외의 果樹, 蔬菜, 森林 등 여러 상업적 농법이 일반인에게 소개되었다. 「果樹栽培法」⁶⁴⁾은 유학생 출신으로 농업 개화를 주장했던 金鎮初가 저술하여 隆熙 3년(1909) 9월 13일에 普成社에서 인쇄하여 발행한 서적으로 학교 교과용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사회의 독습을 위해 쉽게 저술하였다⁶⁵⁾ 고 밝히고 있다. 김진초는 해외에서 농학을 수년간 공부하여 그 학문의 혜택을 국민에게 균등히 주어 나라가

발달할 수 있으니 이 책을 편술한다⁶³⁾는 간행동기를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편에서는 과수 재배에 관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서술한 總論編과 각 과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各論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蔬菜栽培全書」⁶⁷⁾는 당시 개화운동의 선각자였으며 애국지사인 張志淵이 隆熙 3년(1909)경⁶⁸⁾에 저술한 서적으로 동서양 고급 원예가의 소책에 관한 모든 저술을 널리 채록하고 정밀하게 모집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서이다. 그 간행동기를 서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부터 고기를 먹는 사람은 멀리 도모할 수 없고 오직 식물을 먹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고기를 즐기는 사람은 안일하고 신기가 혼탁하여 가볍게 먹는 자의 청명함에 이를 수 없다고 하여 소채 재배의 의의를 부여하여 간행하였다.⁶⁹⁾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補遺가 더해졌다. 緒論, 根菜類, 莖菜類, 豆菽類, 苳菜類, 香辛類, 水菜類, 菌曹類, 木菜類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으며, 보유는 總論, 除蟲, 灌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3) 皇城新聞 1908년 4월 24일

養鷄者는 簡單 富術이라 彼泰西各國에는 此로 累巨萬 財產을 致호는 者가 甚多 矣 我國의 養鷄法은 如此 幼稚 乎니 엇지 慨歎 奚 非 아니리오 故로 此書를 刊出 ㅎ야 西國의 養鷄新術을 詳論 ㅎ앗소 오니 有志 君子는 購覽 實施 ㅎ시을

64)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65) 皇城新聞 1909년 9월 5일자 광고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3일자 광고

皇城新聞 1909년 9월 24일자 광고

本書는 學校 教科用에 必要 甚 矣 而 一般 農業社會의 獨習을 供키爲 ㅎ야 容易히 解得 ㅎ도 殊 難 矣 ㅎ오 尼 實業에 有志 志 新 僉 彦은 購覽 ㅎ시을

66) 果樹栽培法序

金君 鐵初 旅海外 治農學有年 既 卒業而 歸思以 其所學 均施于 國人以爲 發達 富強之 基而 先施以 果樹栽培法 宜也 故有此 編之 述焉(下略)

大韓隆熙 三年 九月 日 朴殷植題

67)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목차 6면, 본문 168면.

68) 판권지와 서문이 없으나 1909년 11월 6일자 皇城新聞에 서적 광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909년도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69) 第一章 緒論

古人이 有言曰 肉食者는 鄙 ㅎ야 木能 遠謀라 ㅎ고 又曰 惟 養食者라야 可以 善事라 ㅎ니 此는 蓋出於 墳罵 富貴者之 言이오 非必 養食者 不 善事 ㅎ고 肉食者는 無謀也 然이는 人之 榮 衰 符 梁者는 每多 沈 安逸 ㅎ야 神氣 昏濁 故로 果有 不及於 功若 食淡者 의 清明 堅確이라 是故로 汪水心이 曰 士大夫-咬得 菜根이면 百事 可 做라 ㅎ니 豈必 咬得 菜根 然後 能 做事業 耶아 但 謂其 立志 堅固 ㅎ야 能 耐若 自 動 ㅎ고 安於 素分 ㅎ야 不以 榮 辱로 動其 志也 天下之 士-每得 忘者-少 ㅎ고 窮而 在下者-多 則 例 藜은 困 吾人之本也 各種 藝 灌園之 術을 惡得 不 講究 哉아

「最新森林學」⁷⁰⁾는 義進社 편집부에서 편찬하여 隆熙 3년(1909)에 발행한 서적으로 삼림의 시급함을 알리고 삼림이 발달한 독일, 일본의 명가 학설을 모아 토양의 적부, 수종전환, 해충구제, 작벌 등의 각 사항을 명료하게 기술하였다.

例言에서 임업이 우리나라의 실업상 필요하나 산에 초목이 없어 삼림계의 각종 학설을 편집하고 독일과 일본의 성대함을 보여주어 국민을 각성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⁷¹⁾하는 간행의도를 엿볼 수 있다.

4. 結 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중국의 농서를 복간하여 이용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실정에 적합한 농서를 官纂하거나 私的으로 편찬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국가와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實事求是를 중요시하는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수많은 농서들이 편찬·발행되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함께 서양학문을 통해 들어온 농업의 신기술을 받아들여 농업시험장과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1900년대 초반에 수많은 근대적 농서들이 발행되었다. 이들 농서들은 농업 생산성을 확대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통된 간행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근대적 농서는 농업 일반서 5종, 농업관련 법규집 3종, 상업적 농업을 다룬 서적이 10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서적은 세가지 범주로

70)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전 1책. 例言 2면, 목차 4면, 본문 219면.

71) 例言

一 林業이吾人實業上必要한固然한니我他森林의現狀을學問國有,民有를勿論한고重灌의數이滋多한지라不可不管林法을實施할지나本書는森林界各種學說을偏執한아斯業의思想을一層喚醒코스務圖함

一 斯業이盛大한獨逸及日本의源委를援引한아我國과對照함은讀者로한아금斯業의利益이如何함을覺悟한고興味를誘起한아國利民福을着着增進케함을期望함

一 森林學科는各種으로區分한아甚히浩汚의涉한니一一히說明코스면卷帙이太多한고로本書는實業家參考에普通供用한기爲한아其主要部分만略述함

一 斯學의淵深함은編者의首見으로는作의臆키難한故로日本森林學士奧田氏의論著를根據한고我國의情境도間間히插入한니其肯綮를得見한아欲言키不敢한지라讀者諸君은斤削을幸賜함

隆熙三年三月日 編者識

구분될 수 있는데, 농업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서적, 당시의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집, 농업을 통해 부를 추구하는 상업적 농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상업적 농법을 수록한 농서 중에서 양잠서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당시 농상공부의 잠업과에서 서적 발행을 적극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光武 9년(1904) 당시 농상공부의 잠업과장인 徐丙肅이 잠업관련 서적의 발행에 상당히 관여한 것이 여러 서적의 서문과 발문에서 확인되었다.

농업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적으로는 「農政新編」, 「農業大要」, 「新撰農業教科書」, 「實利農方新編」과 같은 4종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農政新編」은 1881년에 저술되어 1901년에 초간본, 1905년에 재간본이 발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농업을 서술하는 농서로서 평가되고 있다. 농업에 관련된 법규집으로는 경작지를 넓히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國有未墾地利用法」과 광산과 임업에 관한 법률집으로는 「鑛林法規」와 「林野法令」이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간행된 농서로는 농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업적 농법을 소개한 서적으로 養蠶, 養鷄, 蔬菜, 果樹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양잠과 양계는 조선후기부터 부각되는 상업적 농법으로서 근대적 농서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서양식 농법을 소개하고 있다.

參考文獻

- 「高麗史」. 1977. 서울: 경인문화사.
- 「국역고려사절요」. 196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三國遺事」. 1986. 서울: 明文堂.
- 「三國史記」. 1977. 서울: 을유문화사.
- 「增補文獻備考」. 1959. 서울: 明文堂.
- 大韓每日申報
- 皇城新聞
- 姜東鎮. 1984. 「韓國農業의 歷史」. 서울: 한길사.
- 金圭星. 1976. 韓國近代農業教育의 史的考察: 1894-1970년대의 學校農業教育과 社會農業教育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미간행).
- 金容燮. 1986. '농사직설의 편찬과 기술'. 「애산학보」. 4. pp.185-240.
- _____. 1987. '농가월령의 농업론'. 「東方學志」. 54 55 56. pp. 223-244.
- _____.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서울: 一潮閣.
- _____. 1992. 「朝鮮近現代農學史研究」. 서울: 一潮閣.
- 白淳在. 1970. 開化期의 韓國書誌: 1884-1918年을 中心으로. 「東方學志」. 제11호. pp. 179-224.
- 安洪範. 1984. 農業教育의 變遷過程에 관한 考察: 1895-현재.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미간행).
- 李光麟. 1965. 「養蠶經驗撮要」에 대하여. 「歷史學報」. 8집. pp. 25-40.
- _____. 1970. 安宗洙의 農政新編. 「韓國開化史研究」. 서울: 一潮閣.
- 李種國. 1991. 「한국의 교과서: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 李春寧. 1989. 「한국농학사」. 서울: 민음사.

ABSTRACT

A Bibliographical study on Modern Agricultural Books in Korea

Bong-Hee Kim

The publication of books on modern agriculture started under the influence of Silhak Thought developed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ommon intention found in these publications is the objective to enrich the country throug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us to secure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surrounding powers.

The study reviews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 this area: five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three on agriculture related legal regulations, and ten books introducing techniques of commercial agriculture. The first category is comprehensive treatment of general agricultural content and the second is legal regulations which affected the contemporary agriculture. The third category is introductory books on commercial techniques aimed at accumulating wealth through agriculture. Silkworm cultivation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se publications owing to the active encouragement given by the Section of Silkworm Cultiv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We can recognise the extensive involvement of Suh Pyung Sook, who served as the Section Chief of Silkworm Cultivation in 1904, by examining introductions and prefaces of many books in this category.

The examples of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ar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農政新編), "General Introduction on Agriculture" (農業大要), "New Textbook on Agriculture" (新撰農業教科書), "Pragmatic Agriculture" (實利農方新編). Of thes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農政新編) is evaluated as the first publication on modern agriculture. It was written in 1881, and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was published in 1901 with the second edition following in 1905.

Examples of the second category are: "The regulation on utilizing uncultivated state owned land" (國有未墾地利用法) legislated and declared with the intention of expanding cultivated area, "Mining and Forestry Regulation" (鑛林法規), "Forest Land Regulation" (林野法令) to administer mining and forestry.

Books on commercial agriculture take up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agricultural publication of this period. These cover silkworm cultivation, chicken farming, vegetables and fruits. The books introduce Western techniques with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approach especially on Silkworm cultivation and chicken farming which had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as commercial agricultu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